metro®
메트로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제3152호 www.metroseoul.co.kr

Life p/15



S라인 만들다 허리 잃는다

Entertainment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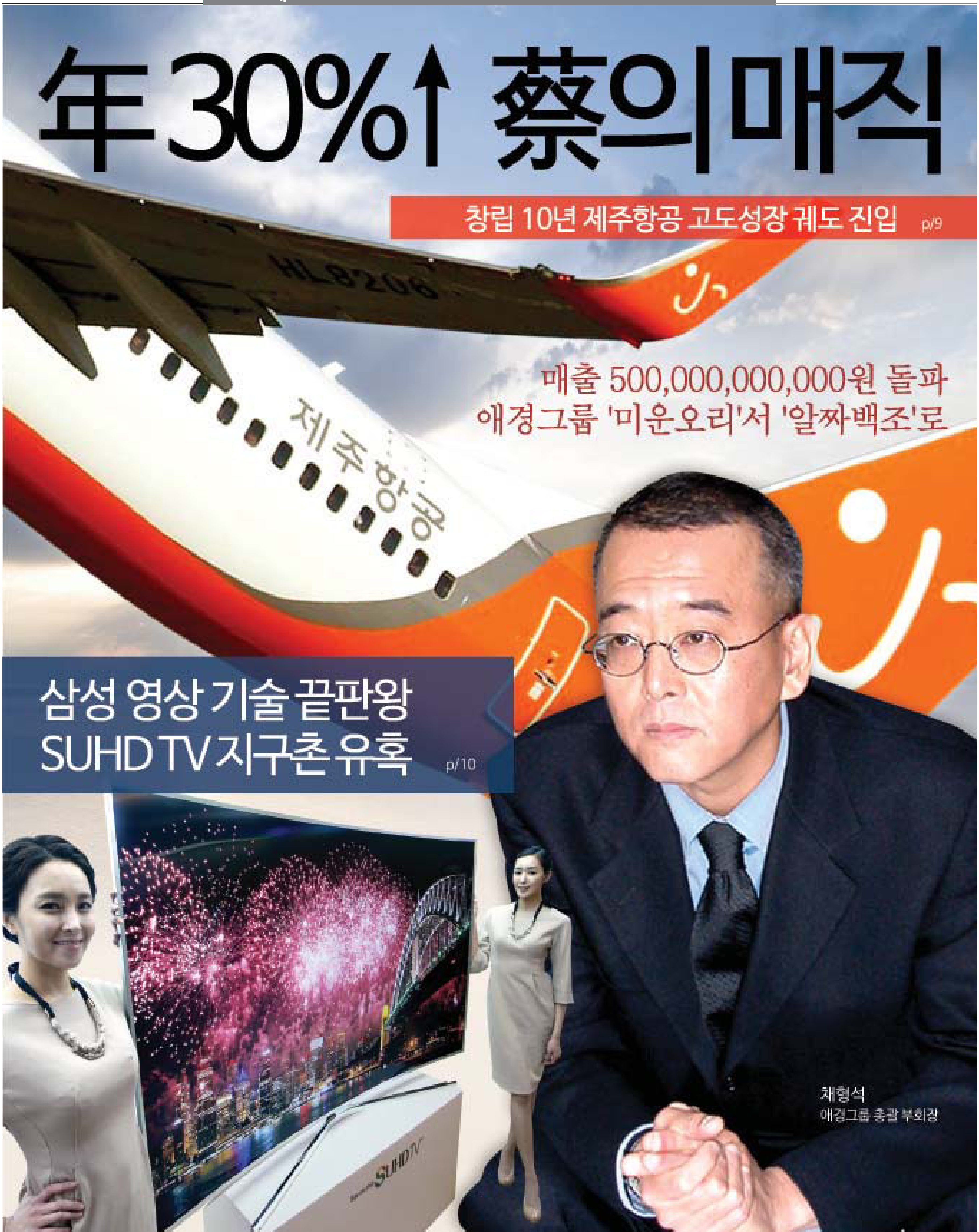
'쎄시봉'으로 돌아온 정우

年30%↑ 蔡의매직

창립 10년 제주항공 고도성장 궤도 진입 p/9

매출 500,000,000,000원 돌파
애경그룹 '미운오리'서 '알짜백조'로

삼성 영상 기술 끝판왕 SUHD TV 지구촌 유혹 p/10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 부회장



수류탄 놓친 훈련병 구한 소대장에 참군인상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수류탄 훈련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훈련병의 구한 김현수 상사에게 참군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통진당 의원들 보선 출마

"이정희 출마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이 박탈된 김미희·이상규 전 통합진보당의원이 5일 4월 29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전 서울 관악을, 김 전 의원은 성남 중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각각 자신의 전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출마는 개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이 짓밟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이번 4·29 보선은 박근혜 정권 2년동안 상처받은 민심을 치유하는 선거"라며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광기 아래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서울 관악을 출마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얘기"라며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며 출마설은 내부적으로도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함께 의원직이 박탈된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최종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전 의원은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통진당 전 의원들이 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4월 보선은 야권 후보가 난립한 채 진행될 전망이다.

야권연대에 관해서는 이 전 의원은 "저희는 야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든 신당이 됐든 그분들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윤아기자

더 커진 자원외교 의혹

단 1g도 반입 못했는데 '연간 4만t 확보했다' 뻥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정부자료'를 인용해 "재임기간 추진한 자원외교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며 노무현정부 총회수율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5일 그 같은 정부자료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과장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 1900억을 투자한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과 관련해 "지난 4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1g의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연간 4만t의 자원을 확보했다고 자주개발률을 뻥튀기한 이명박정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물공사의 '2010년 M&A 시행계획(안)'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이 사업이 자주개발률에 기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3만5500t에서 최대 4만t까지 자주개발량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또 캡스톤사 구리 생산량이 우리나라 자주개발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41%, 국내수요 기여도 역시 4.32%에 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자원 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목적인 사업으로 향후 주가 상승을 통한 주식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지적이다.

또 실제 2011년 계약체결 이후 이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구리는 단 1g도 없었고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비상수급량에 해당하는 생산량까지 우리나라 자주개발량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자주개발량은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율이고, 자주개발률은 총 수입량에서 자주개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야당의원들은 이같이 편법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했던 배경에 대해 광물공사 측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자주개발률 획득을 위해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한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광물공사는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에서 업체의 주가 폭락으로 1000억원을 날렸다. 야당의원들은 손실이 충분히 예측가능했고 위험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만 이사회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여정, 일하는 오빠 모습에 '흐뭇한' 미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화장품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밝혔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미소를 띤 채 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살펴보는 오빠 김 제1비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무상급식·보육 완전폐기 아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에 대한 전면재검토 필요성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완전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보육문제는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상급식과 보육을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 문제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임시국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2·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2월엔 특히 경제활성화법안들·김영란법·안심할 수 있는 보육에 관한 법들·공무원 연금 협상 진척시키는 문제 등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북 "MB같은 자들과 중대사 논의하겠나"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남북 비사'를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검은 것도 희다고 철면피하게 우겨대는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산송장 이명박 역도가 회고록을 통해 북남 비공개접촉과정을 왜곡하며 우리를 헐뜯는 추태를 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평통은 이 전 대통령을 '천하무례한 정치패륜아' '너절한 시정배' '역사의 시궁창에 쳐박힌 산송장' 등으로 부르면 강하게 비난했다.

조평통은 또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며 제 놈이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한 규탄 여론의 초점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회고록이 아니라 민족반역범죄를 반성하는 죄행록이나 쓰고 역사의 응당한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대가를 요구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는 "감히 북남수뇌상봉 문제를 거들며 그 논의과정을 완전히 오도해 흑백을 전도한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역도는 집권 기간 통치위기가 격화될 때마다 그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특사파견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을 구걸해왔으며 그때마다 큰 선심이라도 쓸 것처럼 놀아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단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거짓말투성이'로 비꼰 바 있다. 북한이 이 전대통령의 회고록을 문제 삼아 남북 대화 가능성에 회의를 내비친 만큼 회고록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윤아기자 yoona1@

"기업인 사면해 달라"

김을동 '설특사' 공식요구…최태원 회장 가석방 주목
"박 대통령 원칙 존중하지만 경제살리기 사활 걸어야"

여당 지도부에서 기업인을 사면해 달라는 공식요구가 나왔다. 법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문제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 박 대통령이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한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 부처 간 벽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여권에서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식요구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설 특사'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장 주목되는 이는 최 회장이다. 최 회장은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넘어섰지만 '형기의 80%를 넘겨야 한다'는 관행에는 못 미친다.

기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총수의 장기 부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설 특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잇따르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 회장의 가석방은 형기의 80%는 넘겨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신기남 선관위원장의 분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선관위원장이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당대회 선거룰 변경에 대해 발언하지 말아달라고 발언하다 일부 당원들의 항의를 받자 단상에서 내려와 항의한 당원에게 논쟁을 벌이며 화를 냈다. /연합뉴스

떠나는 문희상 "이인영에 제일 실망"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네거티브라는 비판이 거센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제일 실망한 게 이인영"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이인영답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평가는 '지난 2일 방송된 문재인·박지원·이인영 등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이 벌인 토론을 시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비대위원장은 "선배님들인 두 사람을 같이 비판할 수 있지만 어느 일이건 안고 가는 식으로 비판해야 한다. 판을 깨지 않는 걸 전제로 (비판을) 해야 한다"며 "(2012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로 갔을때 문재인 후보가 어물어물한 게 훨씬 마이너스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데, 성숙하다는 인상을 줘야 하는데 항상 급급했다"며 "'이러면 안되지, 이인영 한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경선에서 나타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그것도 전략"이라며 "꼭 플러스로만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그거라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후보에 대해서는 "박지원 잘하더라"며 "박지원 말 잘 한다고만 생각했지 감동을 줄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도 안가진걸 다 갖고 있어 부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73세로 나보다도 세살 많은데(도) 그 열정·집요함·부지런함을 누가 당하겠나"고 했다.

문 후보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간 데는) 그 분의 노력도 있는 것"이라며 "제일 공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60년만에 다시 찾은 포천 5일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관인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미40사단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미40사단은 정전협정 후 관인 지역에 재건사업을 벌였으며 1955년 4월 관인중고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조성했다. /연합뉴스

총리후보는 '투기의 달인'?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 부동산 옮겨타기 전형적 투기수법
신반포·압구정·타워팰리스 등 투기광풍지역은 모두 거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무관 임관 초기 강남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부친이 그 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의 단층주택(16평)에 75년 9월부터 78년 2월까지 거주했다.이 후보자는 이 집을 담보로 77년 7월쯤 480만원을 대출받고, 그해 말에서 이듬해 초 신반포2차 아파트(33평)를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평당 43만원에 분양됐다.78년 10월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엔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80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1570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시기 같은 아파트 42평형을 사고 33평형을 팔았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새 2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 기간인 88년 7월엔 42평 아파트를 다시 처분하고 인근의 46평형 신반포 3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도 5년 뒤인 93년 처분하고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도곡동 타워팰리스·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주소를 옮겨왔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렸고 신반포 아파트·압구정 현대아파트·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신반포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인 78년 2월쯤 후보자 부부가 함께 잠실주공아파트에 6개월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기 전 전매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잠실 지역 역시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투기지역으로 미등기 전매에 대한 단속이 심했던 곳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김무성 "법인세 인상은 최후수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고 말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도 말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장사가 안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비가역성이 특성이라 지금까지 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복지에는 부정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엔 세출 조정을 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다가 하다가 안될 때 증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조세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잘 됐다. 여야가 같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총 강연으로 인해 자신이 불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제안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기업인만 가석방하면 다른 사범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가석방은 안된다. 방법은 사면 밖에 없다"며 "사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太陽能充電背包
未來 李河君想用新能源改
變世界，漢能集團研發的
功率為5W的背包，在陽光
下只要曬2至3個小時就可
以為手機充滿電。

metro France



ılouse, le musée Aéroscopia pr
nvol

QUE – La nouvelle installation basée sur la commune de Blagnac près d
portes mercredi. Le musée abrite 80 avions ou hélicoptères retraçant l'h
l'Airbus A 300 B au Concorde ou à la Caravelle.

툴루즈 공항 이색 박물관 개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루즈(Toulouse)공항 활주로 인근에 항공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 측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의 여객기와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됐던 전투기 미그-15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 밖에 비행장 도로 밖에 전시된 각종 콩코드 여객기와 제트 여객기 모형이 눈길을 끌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워진 이 항공 박물관은 약 12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튜브 형태의 커다란 창고에는 총 25대의 비행기가 전시돼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metro Portugal


Lisboa segur
para Erasmu

Inquérito. Oitenta e seis por cento dos estudantes Erasmus consideram Lisboa uma cidade segura. Marquês, Baixa e Saldanha são os bairros que mais alunos estrangeiros acolhem.

교환학생 80% "리스본 안전해요"

교환학생 대부분이 리스본을 '안전한 도시'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메트로 포르투갈에 따르면 에라스무스 네트워크(ESN LISBOA)가 리스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환 학생 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6%가 리스본을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 학생은 13.9%에 불과했다. 교환학생들은 방을 임대해준 집 주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주인이 훌륭하다'는 대답이 26.9%에 달했다. 28.7%도 집주인에 대해 '매우 융통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metro Russia


Учёным дали
по миллиону

쓰레기서 금 만들고 모래로 전기 생산 이색 연구 늘고 있다

이색 연구에 매진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메트로 모스크바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 정부는 러시아 신진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자 단체 10곳에 100만 루블(약 160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들 과학자들의 연구 목적은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쓰레기에서 금 만들기, 담배에서 신약 개발하기, 모래를 이용한 발전 등 이색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생물학자 따찌야나 코마로바야와 예카테리나 쉐수코바야는 담배 잎에서 HER2의 치료제 성분을 추출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쉐수코바야 박사는 "담배 잎에서 박테리아를 배양한 후 5일이 지나면 신약에 필요한 항체를 추출할 수 있다"며 "신약이 개발되면 많은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심 무라비요프 박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광물 기업 폐기물에서 금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무라비요프 박사는 "현재 광물 기업이 배출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우랄 지역에 쌓여있다. 이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며 "폐기물 1t에서 1g의 금을 만들 수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나스타시아 일류히나 박사와 미하일 블라스키니이 박사는 모래의 주성분인 알루미늄을 이용해 축전지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일류히나 박사는 "모래에서 규소를 분리하고 산화시킨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전지를 만들고 있다"며 "현재는 실험 단계이지만 향후 안정화된 전지를 만들 수 있도록 산화를 늦추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리아 부야노바 기자·장윤희기자

가방만 걸쳐도 휴대전화 충전

박막태양전지 부착 제품 내달 출시…2~3시간이면 충전 완료



가방이나 옷을 통해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을까.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같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제품이 등장해 화제다.

메트로 홍콩은 중국 태양광패널용 박막업체인 하너지(Hanergy)가 박막태양전지를 이용한 박막태양전지제품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너지 그룹 리허쥔(李河君) 회장은 앞서 열린 신제품 출시회에서 "박막태양전지 덕분에 인간도 식물처럼 태양광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품은 에너지 사용방식에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박막태양전지는 유연성, 경량, 고성능, 다양한 색상과 형태 등의 장점을 지녀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동 가능한 분산전원 기술을 토대로 에너지저장, 컨트롤, IT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에너지를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리허쥔 회장의 설명처럼 박막태양전지 제품은 사용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다.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은 물론 평상시 착용하는 옷, 모자, 가방, 텐트 등에도 부착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백팩(사진)에 박막태양전지를 부착할 경우 출력은 5W에 달한다. 태양빛에 2~3시간 정도 노출하면 휴대전화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박막태양전지를 부착한 외투는 출력이 4W로 휴대전화를 완충하는데 3~5시간 걸린다고 하너지 측은 설명했다.

◆잠재시장규모 83GW에 달해

박막태양전지의 시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2020년 전세계 스마트폰 수량은 60억 대 이상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폰 한 대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약 4kwh로 60억 대의 1년 사용량은 240억kwh가 넘는다. 태블릿PC까지 합치면 중국 최대의 발전소인 싼샤댐 발전소의 반년 발전량에 맞먹는다.

또 전기자동차 보유량은 2020년 500만에서 1000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리허쥔 회장은 2020년 태양열자동차와 태양에너지전자제품의 잠재 시장 규모가 8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리허쥔 회장은 최근 발표된 2015년 후룬 부호리스트에서 자산 총액 1600억 위안(약 28조1000억 원)으로 중국 최고의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정리=이국명기자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역대 최고

작년 2825억 '짭짤'… 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 > 농협 순

지난해 7개 시중은행들이 3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282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2010년 2142억원에서 작년 2825억원으로 31.9%나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3243억원 수입을 거둬들이며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2334억원), 신한은행(2031억원), 하나은행(1658억원), 농협은행(1605억원) 순이었다.

외환은행은 규모가 작은 반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외환은행은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다섯배나 급증했다.

전체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64.9%(8296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은행들은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며 "최근 정부가 은행들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렸지만 1년 7개월 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그는 "현재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행 역시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유일한 은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행 혼자 수수료율을 인하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수수료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2014년에는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5일>

지수	값	변동
코스피	1952.84	(−9.95)
코스닥	600.81	(+2.58)
금리(국고채 3년)	1.98	(+0.02)
환율(원·달러)	1090.70	(+5.00)



'밸런타인 데이 준비하세요'
5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도곡점에서 모델이 다이소 DIY홈베이킹 제품과 다양한 초콜릿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KB금융, 당기순익 전년비 10.2% 증가

KB금융그룹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4007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그룹의 관리자산을 포함한 전체 총자산은 40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3000억원 증가했다.

순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전년 대비 1.6%(1070억원) 감소한 6조 4158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4분기에는 1조 6383억원을 기록해 전분기(116억원) 대비 0.7% 증가했다. 순수수료이익은 방카슈랑스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수익 감소로 1조3827억원을 기록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금감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독자적인 기획조사를 확대하면서도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처리완료 사건 중 기획조사 비율은 39.3%였다.

특히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정테마 등에 신속히 조사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가장한 자의 공매도, 주식스와프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신용공여, 편법적 재산이전, 계열사 발행증권 부당 인수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분·채무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 권유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투자설명서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민지기자 minji@



"카카오 캐릭터 통장 출시" 하나은행은 다음카카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캐릭터 통장 6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제공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비즈니스파크, 주변 부동산시장 이끈다

업무 비롯해 주거·문화·상업기능 집약돼 편리

비즈니스파크가 인기다. 비즈니스파크란 업무지구에 주거·문화·상업 기능이 더해진 미래형 복합도시를 일컫는다. 일하고 먹고 자고 노는 등의 모든 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곳곳에 비즈니스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일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개발 붐이 일게 된 것이다.

비즈니스파크의 대표 격인 테헤란밸리의 경우 법조타운을 시작으로 삼성, 포스코, GS, 무역센터까지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관련 업종들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주변으로는 아파트와 상가·호텔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단순 업무지구에 그칠 수 있던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테헤란밸리는 복합상업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 유동인구에 상주인구까지 몰리다 보니 주변지역 활성화까지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최근 제2, 제3의 테헤란밸리가 속속 만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58개의 기업과 4만여 명의 상주인력이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도 삼성테크윈, 넥슨컨소시엄 등 227개 업체가 입주하며 상주인력만 16만여 명에 이른다.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는 포스코와 삼성, 롯데 등 대기업 이전이 활발한데다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도 들어와 있다. 뉴욕주립대, 연세대, 인천대 등 대학들도 둥지를 틀면서 상주하는 인구만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도 경기도청을 포함한 행정타운과 컨벤션 센터, 백화점, 아파트 등을 갖춘 도심형 복합상업문화공간 개발이 계획돼 있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파크를 위해 주변으로 업무·주거용 건물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中 국내 금융시장 공략

보고펀드 지분 매입… 금융당국 대주주 승인 남아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매각된다. 앞서 안방보험은 우리은행 인수에도 참여한 만큼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1대 주주인 보고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보고펀드)은 최근 안방보험과 지분 57%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매각가격은 주당 1만9000원 안팎으로, 총 1조1000억원이다.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인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소유지분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수후보군에 실사를 허용키로 했다.

동양생명 인수에 관심을 보인 곳은 안방보험 등 중국계 보험사 2곳과 국내 PEF 4곳 등이었지만 실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안방보험이 유일했다.

안망보험은 지난해 진행된 우리은행 매각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히 국내 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경영권은 경쟁입찰로 추진된 만큼 유효경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안방보험은 최근 해외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인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19억5000만 달러(약2조1000억원)에 매입했다. 또 벨기에 보험사 피디아의 지분 전량을 사들이고, 프라이빗 뱅킹과 기업대출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벨기에 델타로이드은행도 인수했다.

안방보험 외에도 중국 보험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내 보험사의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지난해 2월 중국 보험사의 해외투자 자산배분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자금의 운용구조 감독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지난해 8월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 '현대 보험서비스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도 발표했다.

위의 조치를 전후해 중국 보험사는 최근 해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중국 2대 생명보험사인 평안(平安)보험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독일상업은행 부동산 그룹 산하의 한 펀드로부터 영국 보험그룹 로이즈(Lloyd′s)의 런던 오피스 빌딩을 매수했다. 이어 평안보험은 향후 3~5년 내에 300억 위안 예산을 해외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 양광(陽光)보험은 지난해 10월 호텔체인업체 스타우드그룹과 4억6300만 호주달러(약 4417억원)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쉐라톤 온더파크 호텔을 인수했다.

CIRC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1.3%(해외자산의 비중 상한 15%)에 불과해 앞으로 추가적인 해외투자 여력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남은 만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국내 금융사 인수는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은 생명보험,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자산 7000억 위안(한화 약 121조원) 규모의 중국 대형 종합보험사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설날에 유용한 카드는?

알뜰한 명절 준비 A to Z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처럼 함께 모이는 때로 고향을 찾은 이들이 서로 간의 덕담을 주고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세뱃돈이나 명절 선물, 차례상 등에 대한 준비로 은근한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꼭 써야하는 돈이라면 지갑 속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알뜰하게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상차림 준비부터 선물, 주유,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과 무이자, 캐시백 등의 혜택을 내놓고 있다.

◆차례용품·선물세트 구매 전 카드 체크해야

삼성카드는 고객들의 실속있는 명절 준비를 위해 '즐거운 설날, 삼성카드의 실용제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9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해 설 선물세트를 구입한 고객은 구매금액의 최대 5%까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오는 20일까지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전국 유명 대형 할인점에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또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50만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설 선물과 세뱃돈으로 롯데상품권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선물도 있다.

이에 따라 30만원·40만원·70만원치 롯데상품권카드를 구매한 고객은 각각 5000원·1만원·2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카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증정용 상품권카드는 '양의 해' 기념 디자인으로 한정 제작됐다.

◆귀성·귀경길, 주유·교통할인부터 최대 50% 캐시백까지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신한카드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28일까지 신한카드로 주유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50%를 캐시백해 준다.

농협카드는 행사에 응모 후 농협주유소 건당 7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10%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타이어 교체 시 최대 24개월 무이자할부와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 시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여행·영화관람·외식 등 힐링을 원한다면

설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이나 놀이공원·영화관람 등 나들이를 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우리카드로 설 명절 준비를 하는 고객 1014명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의 주유권과 헤어 이용권, 가족 외식권을 제공한다. 또 설 연휴 기간 행사에 응모한 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카드 고객은 이용금액의 최대 100%까지 캐시백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22일까지 여행이나 외식, 영화관람을 즐긴 회원의 명절 합산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20만 롯데포인트를 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빨간밥차' 봉사단 2기 찾습니다 BC카드는 5일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빨간밥차' 2기 봉사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빨간밥차' 봉사단은 BC카드가 10년 간 지원해 온 이동용 급식 차량을 통해 무료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BC카드 제공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사업 '글쎄'

서울시가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벌인다. 오랜 기간 세입자를 찾지 못한 임대인의 집과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찾아 각각 시세의 90%와 80%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공가 임대주택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홍보를 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시 측은 "노후화가 심한 주택이나 오랫동안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에 대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노후화 정도는 감정원 평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으로 16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공실 기간에 상관 없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집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에게 유리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굳이 이 사업에 달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메리트가 확실해서 경쟁이 치열한 곳일 경우 시세의 90% 수준이면 확실한 유인이 되겠지만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파트보다는 노후화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랜 기간 비어있던 집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유자 동의시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한 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단독주택(방 3개 이상)·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지하철 또는 버스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산 꼭대기 같은 집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며 "확실한 수치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가 이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는 등 소득이 변할 경우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기본은 퇴거가 원칙이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고 융통성있게 정할 예정"이라며 "입주자는 해당 구청장이 모집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 공모는 진행중이며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7억원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인생의 좋은 동반자분들과 함께 하는 설날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되세요


신제품
인사돌 플러스정
Herbal Medicine
Patented Medicine
Clinically Proven
100정
Dongkook pharmaceutical
특허 받은
생약복합성분

코스닥, 어떻게 600 돌파했나

코스닥지수가 6년 8개월만에 600선 고지를 넘어섰다.

5일 코스닥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600.50(9시 5분 기준)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에 비해 2.58포인트(0.43%) 오른 600.8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도 전일 종가 기준 159조394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의 상승 원인은 개인의 매수세에 있다.

최근 일주일(1월 30일~ 2월 5일)간 개인이 1524억원의 주식을 사들이며 전체 매수 대금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날도 외국인와 기관이 각각 1102억원, 1070억원 주식은 내던졌으나, 개인이 2110억원 주식을 사들이면서 600선을 유지했다.

코스닥지수 상승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름세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4일 기준)으로는 다음카카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동서, 메디톡스, 컴투스, CJ E&M, 이오테크닉스, GS홈쇼핑, CJ오쇼핑, 로엔 순이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의 연초(14년 12월 18일~15년 2월 4일 기준) 시총 등락률은 하락한 GS홈쇼핑과 CJ홈쇼핑을 제외한 전 종목이 평균 18.9%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컴투스와 로엔, 메디톡스, 다음카카오는 20%를 넘는 시총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거친 오름세를 자랑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600선 유지 여부는 관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산업 활성화 정책과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시장의 대안으로 코스닥시장이 부각되면서 코스닥지수가 600선을 돌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닥시장은 최근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닥지수의 랠리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원자재 파생결합상품 주목

전문가들 "유가 바닥 찍었다" … 투자 수익 기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선물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원자재 파생결합상품(DLS)'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 이상 큰 폭의 유가 하락은 없을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다시 DLS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 DLS란 금, 은, 원유 등 원자재 선물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원자재 DLS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상품에 속하지만, 잘만 투자하면 쏠쏠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원자재 DLS는 2300억원 어치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파생상품의 발행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DLS 시장에서 원자재·복합·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제유가와 금 등 원자재 가격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를 활용한 상품들이 줄을 지을 것이란 얘기다.

이처럼 DLS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60달러(8.7%) 하락한 배럴당 48.45달러에 마감했다. 하루 하락 비율로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따라 WTI의 가격은 다시 50달러 아래로 주저앉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자재 DLS 투자에 나선 투자자라면, 향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스스로의 전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원유 가격이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유가 급등을 노리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가격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향후 국제유가가 더 하락할 것 같다면, 투자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만기'도 원자재 DLS 투자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최근처럼 원자재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단기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은 편이다. 다만 손실 구간에 진입할 경우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만기가 긴 상품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손실 구간에 진입하더라도 나중에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자재는 극단적으로 낮아진 기초자산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유가나 금 가격이 극단적으로 하락하기 더 어렵다는 전망 아래 공격적 투자자들의 DLS 설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동부증권, 5일부터 연 2.35% 추구 ELB 판매 동부증권이 6일까지 최대 연 2.35%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동부 세이프 제87회 파생결합사채(ELB)'는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4일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동부증권 제공

키움증권, 베스트 투자컨설턴트 시상식

키움증권이 지난 4일 오후 4시 '2014년 하반기 키워드림 베스트 투자컨설턴트' 시상식을 열었다.

'키워드림'은 투자전문가들이 온라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정보 제공 및 종목 추천을 하는 전문가 서비스다. 키움증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201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연속 전체 1위를 달성한 김광재 키움증권 컨설턴트다. 작년 한해 코스피 시장이 -4.76% 하락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고객 평균 수익률 47.4%의 결과를 냈다. 김 컨설턴트는 오는 9~10일 2015년 시장전망·투자전략을 중심으로 키워드림 온라인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라기자

예탁원, 시장성 기업으로 재도약

중국시장 투자·새 성장동력 발굴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5일 "시장성 있는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탁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데 대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시장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민영화 논리로 경영하기 위해 지속 성장 관점에서 운영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부가사업 수익확대 등 능동적인 재무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상장추진으로 거래소와 예탁원의 소유와 조직구조 개편이 된다면 소유구조 변경은 주주인 금융회사 주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거래소와 예탁원의 소유구조 문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거시구조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해당 기관들과 정부의 승인 및 국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거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중국 시장 투자 지원을 위해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 후강퉁과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 자격 획득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외에도 올해 증권 전자화와 캡테크(CapTech·자본과 기술의 융합)를 통한 새 성장동력 발굴, 국외 서비스 확대, 부산 금융중심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보라기자

경영사 펀드 몰아주기 비율 신영·미래에셋증권 높아

지난해 계열사 신규 펀드의 몰아주기 비율이 높은 판매사로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꼽혔다. 특히 3월 결산인 신영증권은 올해 1분기에 판매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50% 룰'을 어겨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2곳(12월 결산) 가운데 지난해 계열 운용사가 새로 내놓은 펀드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증권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신규 펀드를 1조3963억원어치 팔아 판매 비중이 전체의 47.7%로 집계됐다. 메리츠종금증권(38.4%)과 KB투자증권(37.6%), 교보증권(35.8%), 유진투자증권(32.8%)도 판매 비율이 30%를 넘었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2~4분기 전체의 59.1%인 4631억원어치의 신영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지난해 신영자산운용이 내놓은 고배당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영증권이 올해 1분기까지 판매 비중(2014년 4월~2015년 3월)을 50% 아래로 낮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0% 룰이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신규 펀드 판매비중을 연간 판매금액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펀드의 몰아주기 관행을 막으려고 지난 2013년 4월 '50% 룰'을 2년 한시 규제로 도입했다.

펀드 몰아주기가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해 건전한 시장경쟁을 해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현정기자 hjkim1@

채형석 애경 부회장 추진한 제주항공 떴다

LCC 최초 연매출 5000억 돌파… 애경그룹 먹여살릴 제주항공, 캐시카우로 부상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54·사진)이 추진해 만든 제주항공이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954년 서울 영등포에서 비누공장으로 시작한 애경그룹이 1993년 애경백화점으로 유통업에 진출한 후 2005년 항공업, 지난해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을 개관하며 호텔업 등 사업다변화를 통해 100년 기업을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LCC 최초로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하며 채 부회장의 선견지명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액 6400억원과 영업이익 36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5일 애경그룹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채 부회장과 제주도 측의 추진



으로 2005년 1월 설립됐다.

채 부회장의 부친이자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명예회장이 제주 출신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

한성항공의 후발주자로 출발해 국내 1위 LCC를 달성하게 된 제주항공은 이제 동북아시아 제1의 LCC를 꿈꾸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양강 체제인 국내시장에서는 3대 항공사로 진입해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채 부회장은 "제주항공을 제1의 LCC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대한민국 항공 빅3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이처럼 제주항공이 처음부터 순탄한 하늘길을 난 것은 아니다.

설립 당시부터 항공업 경험이 없다는 내부 반대에 부딪혔고, 그거 보란 듯이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주위의 비웃음을 샀다.

그 사이 채 부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최대 고비를 겪기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단호한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그룹 차원에서 제주항공에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며 매제인 안용찬 애경그룹 생활항공부문 부회장(56)과 함께 비상을 준비한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의 결실로 이륙한 제주항공은 점차 고도를 올리고 있다.

2011년 적자 탈출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기록한 295억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4.1% 증가한 규모다.

매출은 2010년 1575억원, 2011년 2577억원, 2012년 3412억원, 2013년 4323억원, 2014년 5106억원 등 5년간 연속해서 천억 단위 앞자리를 바꾸며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을 비웃었던 업계 안팎에 여 보란 듯이 속 시원한 비행을 선사한 셈이다.

지난해 보잉 737-800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한 제주항공은 올해도 4대를 늘려 기단을 21대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국제선을 7개국 18개 도시 25개 노선으로 확대하면서 4개 국내선을 포함해 총 29개의 국내외 노선망을 갖출 방침이다.

제주항공의 올해 최대 과제는 유가증권 신규상장이다.

사측은 지난해 말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음달 상장심사를 증권시장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IPO 시기는 상장주관사와 결정해야겠지만, 중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올해 안에 상장한다는 최종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한화그룹, 중소협력사 대금 1170억 조기지급

Hanwha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설을 앞두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중소 협력회사 대금을 조기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한화 방산부문 및 기계부문,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한화건설, 한화S&C 등의 제조·건설분야 계열사들은 중소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금 약 1170억원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들은 약 60억원 규모의 지역특산품을 구매해 고객·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기아차, 안전환경 실천 결의대회 기아자동차는 5일 박한우 사장 등 7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생산교육센터에서 '안전환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맨 앞줄 왼쪽부터) 홍근선 상무(서비스사업부장), 이승철 전무(화성공장장), 김종웅 부사장(광주공장장), 권혁호 상무(영업지원사업부장), 박한우 사장(가운데), 최준영 전무(노무지원사업부장), 박승원 상무(안전환경기획실장), 정찬민 전무(경영지원본부장), 박광식 전무(소하리공장장)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기아차 제공

SK이노베이션 37년만에 적자

유가급락한 4분기에만 4630억원 영업손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매출액 65조8757억원, 영업손실 2241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77년 이후 37년 만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7938억원(1.2%) 줄고, 영업이익은 1조6069억원 줄어 적자전환한 수치다.

사측은 "글로벌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사업의 실적부진 및 지난해 4분기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영업손실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은 지속된 정제마진 약세로 3분기까지 40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 재고평가손실이 커져 연간 99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화학사업은 파라자일렌(PX) 등 아로마틱 계열의 전반적인 시황 부진과 4분기 급격한 나프타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전년 대비 57.4%(4840억원) 감소한 35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최근의 유가 급락의 악조건 속에서 영업이익 4286억원을 기록하며 석유사업의 손실을 일부 만회했다.

또 미국, 베트남 등 광구의 추가 생산을 통해 일일 생산량을 7만7000 배럴까지 증가시켰다.

윤활유사업은 고급 윤활기유 수요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6.6% 증가한 2898억원을 기록해 회복세를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의 자급률 증가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 등 구조적 한계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며 비용절감과 공정운영 최적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이상운 효성 부회장 "사물인터넷 등 IT 제고에 최선"

이상운(사진) 효성 부회장이 "기술기업 효성의 명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서 개척자정신을 갖고 기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5일 임직원에게 보낸 'CEO 레터'를 통해 "핵심기술은 더욱 심화시켜 경쟁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고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확보해 업계를 리드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생존하



기 어렵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의 대응방법 중 하나가 IT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이나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석권했던 노키아를 예로 들며 "아무리 글로벌 톱 수준의 회사라도 기술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순간 추락하게 된다"면서 "반면 스위스의 명품시계기업들은 전통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스위스 시계의 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술의 깊이와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며 "현재 잘하는 사업들은 누구보다 앞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사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삼성 "10년 연속 글로벌 TV 1위 도전"

SUHD TV 출시… 경쟁사에 강한 자신감



5일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이 삼성 S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SUHD TV를 출시하고 올해 10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에 도전한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5일 서울 강남 더라움에서 'SUHD TV 미디어 행사'를 열고 "올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10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계 최초 공개된 SUHD TV는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퀀텀닷(quantum dot·양자점) 소재와 삼성전자만의 앞선 화질 기술을 결합해 탄생시킨 제품이다. 카드뮴을 쓰지않는 친환경 기술과 새로워진 패널, 피크 일루미네이터 기술로 기존 TV보다 2.5배고 밝고 더 깊은 명암비 표현이 가능하다. 리마스터링 엔진으로 콘텐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각 장면 밝기와 색감을 그대로 재현한다. 일반 풀HD급 콘텐츠도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거치면 4배 가량 선명한 UHD급 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올해 삼성 TV 키워드는 혁신"이라며 "지난해 전 세계 초고해상도(UHD) TV 시장 규모는 1300만대로, 전년보다 8배 증가했고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UHD TV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UHD TV 시장은 65% 성장했고, 65인치 이상 커브드 TV 가운데 삼성 커브드 TV가 80%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자체 운영체제(OS)인 타이젠을 탑재한 것과 관련해 김 사장은 "UHD TV는 미래 스마트 가전의 중심이 되는 제품"이라며 "올해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청소기까지 타이젠 OS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품의 성능을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앞장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해 'UHD 얼라이언스'를 설립해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일부 영화사나 콘텐츠 제작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 이어 TV에 적합한 영화와 드라마, 예능 분야의 동영상 비디오를 선별해 보여주는 서비스인 '밀크 비디오'를 한국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T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쟁사 OLED TV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사장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소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고, 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프리미엄 제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물감이든 유화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쟁사인 LG전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OLED TV를 겨냥, 낮은 수율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 TV 시장내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겨울엔 헌혈하세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 임직원 1만2000명이 동절기 혈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헌혈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 아시아 시장 공략 나서

올레드TV·생활가전 선봬



LG전자 아시아지역대표인 이호 부사장이 LG 올레드 TV, 더블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등 주요 전략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다양한 크기·형태의 '올레드 TV'와 신형 생활가전으로 무장하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4~5일(현지시간) 양일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지역밀착형 전략제품 발표회 'LG이노페스트 2015'를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 신제품 및 사업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아시아 지역 15개국의 주요 거래선·기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이 행사에서 77·65·55인치 등 다양한 크기에 가변형·곡면·평면 등 다양한 형태를 적용한 울트라 올레드 TV를 전시했다. 또 색재현율과 명암비를 높여 화질을 한층 강화한 울트라HD TV를 3월부터 출시해 아시아 프리미엄 TV시장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아시아 시장의 인터넷 이용 환경, 접속 빈도 등을 반영해 스마트 기능이 없는 보급형 TV에 게임을 탑재한 '게이밍 TV'도 지역 특화 제품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오른쪽 문에만 있던 '매직스페이스'를 왼쪽 문에도 적용한 '더블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정수기와 냉장고를결합한 '정수기냉장고'를 내세워 아시아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대용량 드럼세탁기 아래에 별도 세탁이 가능한 소형 세탁기를 결합한 '트롬 플러스', 정장 바지 칼주름 관리 기능 등 성능을 강화하고 부피도 30% 줄인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풀라인업, 뎅기열과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모기를 퇴치하는 에어컨 등도 선보였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갤럭시 S6' 반전의 '잭팟' 될까?

반도체 기술력으로 퀄컴 발열 논란 비켜갈 듯

세계 스마트폰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다음달 출시될 '갤럭시 S6'가 분위기 반전의 '잭팟'이 될지 관심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에서 1위를 지키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애플과 샤오미에 밀려 3위에 올랐으며 인도에서는 현지 업체인 마이크로맥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에 따라잡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선이 쏠리는 곳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앞서 다음달 1일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경쟁사보다 앞서는 자사의 반도체 기술력을 집중해 다시 스마트폰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S6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64비트를 지원하는 퀄컴의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1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칩이 '발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갤럭시 S6 출시마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자체 AP인 '엑시노스 7420'을 보유 중이며 지난해 4분기 미국 오스틴 라인에 14나노 핀펫 양산을 위한 투자까지 집행했다. 엑시노스를 출시 시기에 맞춰 양산해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에 탑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도 집중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성능·대용량의 메모리인 '이팝'을 본격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팝은 D램과 낸드플래시, 컨트롤러를 하나로 묶어 모바일 AP 위에 바로 쌓을 수 있는 칩으로 내열 한계를 높였으며 실장면적을 줄여 더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에서는 이팝이 갤럭시 S6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자체 AP 엑시노스와 이팝을 통해 퀄컴과 일정 거리를 두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자체 AP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아직 개발 중인 LG전자·소니·샤오미 등 경쟁사들은 최신 64비트 AP로 스냅드래곤 810을 채택했다.

여기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810의 문제를 수정한 제품을 3월경 다시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냅드래곤 810의 발열 논란에 대해 "엑시노스 7420이라는 자사 솔루션을 보유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 S6에게는 오히려 영업 환경 개선을 의미하는 호재로 판단된다"며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한 각 스마트폰 업체들의 주력 신규 제품들은 수정된 제품에 대한 평가 후 2분기 중순 경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의 주력 신제품 출시 시기가 늦어지는 동안 삼성전자가 3월경 먼저 갤럭시 S6를 출시하게 되기 때문에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혜인기자

현대글로비스 주식 13% 매각 재추진

공정거래법 규제 취지 부응·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

정몽구(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팔려다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실패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재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 부자는 이날 장마감 후 보유중인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주식 502만217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매각을 주관한다.



매각대상은 정 회장 지분 4.8%(180만주)와 정 부회장 지분 8.59%(322만2170주)로 지난 12일 처음 블록딜에 나섰을 때와 같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파는 목적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14일부터 시행된 개정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 총수나 해당 계열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한화S&C 등 4개 기업과 함께 1년간 유예기간을 받아 다음달 14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한차례 블록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승부수를 띄운 것은 법 적용 이전에 지배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김종훈기자 fun@

LG유플러스, 소상공인 전용 '알뜰팩' 출시

LG 유플러스는 NH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 정훈정보시스템과 함께 부산지역 소상공인용 통신서비스 상품을 내놓았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이 선보인 상품은 'LG유플러스 알뜰팩'으로, 각 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묶음형 상품이다.

NH농협은행의 결제 계좌를 포함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LG유플러스가 LTE 라우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훈정보시스템은 카드 결제 단말기 제공을 비롯 결제 업무 처리를 대행한다.

LG유플러스는 결제 단말기의 통신에 필요한 LTE 라우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통신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 부분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신용대출(최고 1억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맹점 대금 입금주기를 단축한다. 또 각종 은행 업무에 따르는 수수료로 면제한다.

정훈정보시스템 역시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을 위해 최신형 결제 단말기 및 IC카드를 무상 제공하고 결제 대행 업무를 통해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황상욱 BS서부산 지사장은 "3사의 업무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알뜰팩은 이달부터 부산지역 NH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정훈정보시스템(1566-1701)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선준기자

두산, 작년 영업익 1조80억원… 전년비 11.2% 감소

두산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조468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5% 감소했다. 두산은 이에 대해 "계열사의 일시적 영업외비용 증가 등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주당 보통주 3500원, 종류주 3550원씩 결산 현금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3.1%, 종류주 5.5%이며 배당금총액은 722억6674만5600원이다. 지급 예정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정필기자 roman@



공급 과잉과 저가 중국산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철강업계의 4분기 실적이 개선세를 보였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 현대제철 제공

포스코·현대제철 선방 동부·동국 울상

공급 과잉·저가 중국산 공세 속 실적 개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4분기 실적이 개선된데 이어 중소·중견 철강기업들도 낭보를 전했다.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저가 중국산 철강공세의 이중고를 겪는 중에도 실적이 개선됐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슈퍼달러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만성 적자에 시달린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의 실적은 미지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2조35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1조4400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100.95% 급증한 실적을 보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실적도 호조세다. 고려아연은 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조614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1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16.2%를 기록했다.

세아베스틸은 4분기 별도 매출액 5324억원, 영업이익 513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423억원보다 20%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고급 철강재 판매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강화로 수익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원인이 됐다.

철강업계의 이런 실적 호전은 4분기가 전통적인 성수기인데다 원자재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의 실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업계입장이다. 두 그룹 모두 지난 1~3분기 경영이 악화됐으나 꾸준한 재무구조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손실 165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부채비율도 지난 2011년 222.6%에서 지난 2013년 247.8%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적극적인 재무개선을 시도했다. 자회사인 유니온스틸과의 합병을 앞두고 차입금을 크게 줄이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동국제강의 9월 말 별도기준 총 차입금은 3조344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38억원 가량 줄었다.

전승훈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의 합병을 통해)재무구조는 일정부분 개선되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부제철 역시 누적손실이 577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1~3분기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10월에는 동부특수강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수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4분기 수익성 향상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SKT, 'T멤버십 글로벌' 혜택 강화

SK텔레콤은 해외에서도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T멤버십 글로벌'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T멤버십 글로벌은 국내 제휴처에서 제공했던 멤버십 혜택을 해외까지 확장해 항공·호텔 예약, 해외 유명 관광지 입장권 할인, 쇼핑 지원 등 해외 여행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T멤버십 글로벌을 새로 출시했다. 신규 제휴 혜택을 추가하고 기존 혜택을 강화해 6일부터 T멤버십 글로벌 혜택을 강화한다.



우선 항공 예약 및 공항 라운지 이용 등 신규 제휴 혜택을 추가한다.

하나투어와 제휴해 하나프리 온라인 항공권을 예매하는 VIP멤버십 가입자는 이용 금액의 3%를, 이외 가입자는 2%를 오케이캐시백으로 적립받는다.

기존 익스피디아 호텔 10% 할인 혜택과 함께 활용하면 항공권, 호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T멤버십 가입자는 인천공항 '마티나 라운지' 입장권을 6000원 할인된 2만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여행정보 사이트 '어스토리'의 여행 설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제휴처 혜택도 더욱 강화된다. 롯데면세점은 T멤버십 VIP 골드 회원을 대상으로 면세점 VIP 골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유명 아울렛 VIP 쿠폰북 혜택 등도 있다. 일본 큐슈 대표 관광지 '유후인'에 'T멤버십 글로벌 특화거리'도 조성된다. 가입자들은 T멤버십 로고가 부착된 '유후인' 지역 총 48개의 가맹점에서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선준기자 rsunjun@

김철하號 바이오 전략 통했다

CJ제일제당, 작년 영업익 24.5% 증가… 고강도 구조혁신 '한몫'



<CJ제일제당 2014년도 누계 실적(대한통운 포함)>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누계	2014년 누계	전년비 증감율
매 출 액	108,477	117,018	7.9%
영 업 이 익	3,455	5,799	67.9%
당기순이익	711	1,379	94.0%

<CJ제일제당 2014년도 누계 실적(대한통운 제외)>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누계	2014년 누계	전년비 증감율
매 출 액	72,100	73,658	2.2%
영 업 이 익	3,466	4,315	24.5%
당기순이익	1,587	882	-44.4%

'오너' 이재현 회장의 부재에도 CJ제일제당 김철하호(號)의 바이오 전략이 통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62% 늘어난 1719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 800억원으로 약 13%가량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총 영업이익(대한통운 제외)은 431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매출(대한통운 제외)은 7조365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이같은 실적은 바이오와 식품부문의 성장세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혁신'에 돌입한 점이 작용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제 라이신 판가 회복과 전 사업부문에서 고강도 구조혁신활동을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김철하(사진) 대표는 2013년부터 식품부문에서 장류·양념류 등의 품목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펼치고, 과도한 판촉활동을 줄이는 등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식품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3조8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가공식품 분야의 구조혁신 활동의 효과가 본격화되며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이익은 약 14% 상승했다.

4분기의 경우 알래스카 연어캔과 비비고 냉동제품군 등 신제품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며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년비 11.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바이오 전문가'인 김철하 대표는 1~3분기까지 하락세였던 바이오 부문 매출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3.5% 늘리며 전체 매출 성장세를 견인시켰다.

바이오와 제약부문을 아우르는 생명공학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90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부터 라이신 판가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과 트립토판·쓰레오닌 등 고수익 사료용 아미노산 판매 증가 등으로 바이오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CJ제일제당 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과 트립토판, 핵산 등 그린바이오 시장에서 시장 1위에 올라있으며 라이신 판가 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부문은 부진제품을 정리하고 고수익 전문의약품(ETC) 위주의 판매에 주력해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

생물자원 부문의 매출액은 돼지 유행성설사병(PED)을 비롯한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조 617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력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료 판매량이 전년비 28% 증가하는 등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핵심제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원가절감·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한 견실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끌어나갈 방침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협력사 상품대금 1조3000억 미리 지급

롯데그룹 4000억원, 신세계 5800억원 등

설을 앞두고 주요 유통업체들이 협력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해 상품대금 지급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대기업 협력업체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설 연휴에 앞서 4개 대형 유통업체가 결제하는 대금 규모만 1조3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설을 앞두고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파트너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대금 40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3000억원, 롯데마트 500억원, 롯데슈퍼 100억원, 롯데홈쇼핑 300억원, 코리아세븐 60억원 등 5개 계열사의 파트너사 1100여 곳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오는 16일 중소 협력사 각각 600여 곳에 지난달 납품 받은 상품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 결제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감안해 지급 시점을 4일 앞당긴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상여금,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매달 23일 결제하던 상품 대금을 이번 달 17일에 지급키로 했다. 현대백화점 500억원, 현대홈쇼핑 450억원을 비롯해 한섬, 리바트 등 전체 그룹으로 따지면 설 연휴 전 6300여개 중소 협력업체에 1500억원에 이르는 대금이 건네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우 애초 결제일이 매월 10일이라 설 연휴 전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협력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10일 신세계가 지급할 상품 대금은 백화점 3000억원, 이마트 2800억원 등 5800억원이다.

홈플러스도 대기업을 제외한 4600여개 중소 협력사가 약 2620억원의 대금을 설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원래 이달 대금 지급일은 업체별로 5~25일이지만, 최대 10일 이상 앞당겨 지난달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오는 16일까지 모든 대금 결제를 마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 영업규제 등까지 겹쳐 대형마트 협력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이 더 커진만큼, 상품 대금을 일찍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꽃 모양 초콜릿으로 사랑 전하세요 5일 서울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서 뚜레쥬르 모델들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출시한 '캐스 키드슨' 특유의 꽃 무늬를 적용한 '캐스카페' 시리즈 초콜릿 6종을 소개하고 있다. /뚜레쥬르 제공

"책임 통감… 개선하겠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 사과

최근 '갑질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은상 대표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메프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이번에 지역 영업직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전형인 실무 테스트 참가자 11명에게 2주간 정규직 사원 수준의 강도 높은 업무를 시키고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논란이 일자 위메프는 해당 지원자를 전원 합격시키기로 방침을 바꿔 11명 가운데 10명이 위메프에 입사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지난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았다. 실무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무테스트를 위한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적시하지 않아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 받은 것.

박 대표는 "위메프는 시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내부 임직원 의견 수렴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매일유업 '가정배달서비스'

매일유업은 이달부터 가정배달 서비스인 '매일다이렉트'를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배달서비스는 기간에 관계 없이 5% 할인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6개월 이하 음용 고객에게는 총 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7~12개월 이하는 7%, 1년 이상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제과 '달콤한 스낵 라인' 강화

꿀먹은 감자칩·꼬깔콘 출시

롯데제과는 신제품 '꿀먹은 감자칩'과 '꼬깔콘 허니버터맛'을 선보이며 달콤한 스낵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두 제품 모두 국내산 아카시아꿀과 네덜란드산 버터로 만들었다. 꿀먹은 감자칩은 스낵을 튀기기 전에 굽는 과정을 추가해 일반



생감자칩보다 지방 함량을 30% 이상 줄였다고 롯데제과는 설명했다. 가격은 각각 1500원.

서해 품은 디자인호텔 세계가 인정했다

네스트호텔 서울서 40분… 건물 곳곳 미술관, 로비 성당 느낌
370개 객실에 600명 수용 가능 대연회장… '현대인들의 은신처'



①네스트호텔 외관 ②플라츠 레스토랑 ③네스트호텔 로비 ④쿤스트라운지 ⑤파티오스위트

고즈넉한 자연 풍광, 예술적인 영감과 사색·울림이 있는 공간. 인천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네스트호텔은 '현대인들의 은신처'로 손색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안락한 둥지가 되고 나아가 이곳을 찾은 고객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네스트(nest)'라는 이름에 담았다. 그만큼 멀리 떠날 여유는 없지만 잠시라도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휴식 공간이 되고자 한다.

네스트호텔의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 서비스는 국내 처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호텔 플랫폼 '디자인호텔스(DesignHotels)'로부터 인정받았다. 건물 곳곳에 있는 작품들은 호텔이 아닌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로비는 오래된 성당에 온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7m의 높은 층고가 웅장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며 큰 장식없이 콘크리트의 물성 자체를 살린 공간에 천장의 대담한 와플 구조가 더해져 특유의 담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빛이 가득 들어오는 전면 유리창 밖에는 드넓은 서해가 펼쳐진다.

로비 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더 플라츠(THE PLATZ)에선 품격있는 올데이 다이닝 메뉴를 선보인다. 파노라마 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바다를 향해 전면 유리창을 내고 계단식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호텔의 야심작 쿤스트라운지는 문화를 향유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독립서점 땡스북스와 함께 격조 높은 문학, 예술 서적 컬렉션을 마련했으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해 뛰어난 음색의 음악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간단한 음료와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도 있다.

네스트호텔 '객실'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70개의 객실 인테리어는 공간 활용에 주안점을 둬 투숙객들이 보다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의 동선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 디자인과 맞춤 제작된 가구들은 독특함을 더한다.

전체 건축 설계도 객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객실 내부에 빛이 풍부하게 들어오게 전면에 유리창을 내고 창문의 각도를 사선으로 틀었다. 이는 이곳만의 독특한 입면 형태다. 또 객실을 아늑한 개인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나무, 부드러운 촉감의 패브릭 등을 사용해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디럭스 룸은 네스트 호텔의 콘셉트를 극대화한 독특한 구조다. 창을 바라보게 침대를 배치해 객실 내의 다른 공간과 다소 분리된 공간에서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또 한 욕실과 화장실, 파우더룸, 옷장 등 비슷한 기능의 영역을 통합해 별도의 공간에 두명 이상이 머무르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독자적인 영역이 확보된다.

스튜디오 스위트에는 인상적인 미니바가 마련돼 있다. 세심하게 선별해 구성한 미니 바 품목, 오리지널 디자인 가구와 조명이 만족감을 높여 준다. '프라이빗 라운지'로 사용하기에도 이상적인 공간이다. 리드 스위트는 사색과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별한 욕실을 마련했다.

파티오 스위트는 특별한 파티를 열거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공간이다. 전망좋은 테라스는 자연 속에서 파티를 하는 듯한 느낌과 시원한 개방감을 주며, 낮은 소파와 테이블이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한층 높여 준다.

이밖에 최대 6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 바움 홀은 대규모 컨퍼런스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최신 AV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세계의 독립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외부 정원과 바로 연결돼 야외 연회도 가능하다.

휘트니스 센터는 다양한 유산소와 웨이트 트레이닝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메탈 메쉬와 콘크리트로 마감돼 독특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묵직한 석재로 만들어진 호텔 노천탕은 외부와 차단돼 고요한 분위기다. 하늘로 천장이 열려 있어 영종도의 빛과 공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문의 (032) 743-9000.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S라인 만들다 허리 다칠라

원푸드 다이어트 피하고 꾸준히 운동해야

S라인은 완벽한 여성 몸매의 상징이다. 연예인이나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S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무리하게 S라인에 도전하다 보면 몸의 중심인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먼저 S라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에서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조심해야 한다.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해 살을 빼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체지방이 아닌 근육량과 체내 수분이 감소한 결과다. 이를 지속한다면 척추에 공급되는 수분이 부족해져 디스크나 척추관이 건조해질 수 있고 근육량이 적어져 척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하이힐은 다리선을 예쁘게 연출하고 허리를 보다 잘록하게 보여주는 등 여성의 몸매를 한층 더 부각시켜준다. 그렇지만 이 역시 허리 건강에는 치명적이다. 높은 굽을 신으면 발끝 쪽으로 신체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몸은 무게를 지탱하고 중심을 잡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허리의 정상적인 S라인이 틀어지게 된다. 따라서 5㎝ 이상의 하이힐을 신을 때는 6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무실 등에서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어 허리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시간을 두고 스트레칭을 실시해 허리의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 또 평소 운동을 통해 허리 근력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용근 연세바른병원 원장은 "건강한 척추를 기본으로 한 명품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2ℓ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며 특히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은 꾸준히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메트로, '장애인 전문위원단' 가동

장애인단체 활동가 5명 등으로 구성



이정원(오른쪽) 서울메트로 사장이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에게 '지하철 장애인 전문위원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제공

서울메트로가 지난 4일 외부 출입구부터 전동차를 탈 때까지 모든 장애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하철 장애인 전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전문위원단은 최민 위원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5명과 공사 간부직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 조사와 개선방안 제시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메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경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뮤지컬 로빈훗 티켓 선물"

설날·졸업 등 지출부담 큰 고객 문화생활 지원
품격·정성 가득 설 선물세트 최대 50%할인판매

설날과 발렌타인데이, 졸업시즌이 겹쳐 씀씀이가 커진 2월을 맞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문화생활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뮤지컬 티켓 선물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이달 28일까지 홈페이지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대작 뮤지컬 '로빈훗' 티켓을 증정한다.



'로빈훗'은 숲의 도적떼를 규합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로빈훗과 그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왕이 되려는 필립 왕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투톱 뮤지컬로 유준상·엄기준·규현 등 인기와 실력을 두루 갖춘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품격과 정성을 담은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6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선보인다.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에 판매하며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1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



/한테크 노보 제공

SNL 히어로, 노보 새 얼굴 발탁

정성호·안영미, 신제품 '라운드' 모델로 활동

전자담배 제조전문기업 한테크노보(Hantech NOVO)가 신제품 '노보 라운드' 출시를 맞아 개그맨 정성호와 개그우먼 안영미를 전속 모델로 기용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광고 촬영에서 영화 '신세계'의 명장면을 패러디했으며 광고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정성호의 다양한 성대모사와 반전 뒤태를 가진 안영미의 섹시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석현 한테크 노보 개발본부장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두 사람의 이미지가 지금까지의 전자담배와는 전혀 다른 노보 라운드의 젠틀한 이미지와 잘 부합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광고는 회사 홈페이지(www.hantechnovo.co.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라틴어로 '새롭게' '다시'라는 뜻을 의미하는 노보는 늘 새롭고 참신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담은 브랜드다. 또 라운드 제품은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굴곡을 준 유선형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그립감과 함께 최대 4㎖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동국제약, '마데카솔 분말' 대용량 내놔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이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 대용량 제품인 '마데카솔 분말 30g'(사진)을 발매했다.

100% 식물성분인 '센텔라정량추출물'을 함유한 마데카솔 분말은 뿌리는 형태의 상처 치료제다. 또 캠핑이나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회사는 욕창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에 대용량 제품 구입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고 전해다. 이에 회사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진 이번 대용량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

한편 회사는 다양한 상처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상처 치료제 선택법을 알리기 위해 '상처가 다르면, 선택도 다르게'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와송진액 프리미엄100'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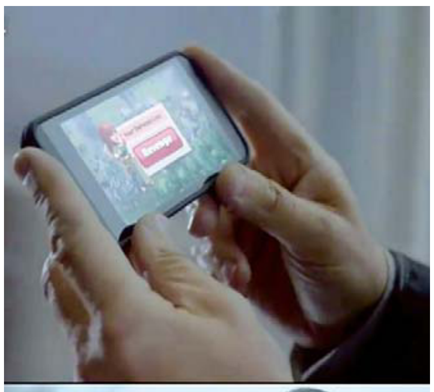
와송(바위솔)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인 와송스토리가 '와송진액 프리미엄100'(사진)을 출시했다. 제품은 고농축된 와송으로 제조됐으며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바디로션과 샴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031)469-1611

/황재용기자

모바일 게임 슈퍼볼 TV 광고도 쐈다

‘클래시 오브 클랜’ 100억 투입…NHN엔터·네시삼십삼분도 공중파 전파







지난 2일 열린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 제49회 ‘슈퍼볼’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광고는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이었다. 이 광고에는 영화 ‘테이큰’ 시리즈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출연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슈퍼볼 TV 중계 광고 단가는 30초 기준 450만 달러(약 48억원) 안팎이다. 1초 광고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슈퍼볼 광고에 클래시 오브 클랜은 무려 1분짜리 광고를 송출했다. 리암 니슨 모델료와 촬영비를 합치면 광고 송출까지 투입된 비용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모바일 게임 업계가 블록 버스터급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이 스마트폰 시대 주수익원으로 떠오르자 광고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마케팅에 불이 붙은 원인 중 하나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근래 들어 모바일 게임 광고가 늘어난 것은 ‘클래시 오브 클랜’ 영향이 크다.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고, 결국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 사건 이후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공격적인 광고로 대항하며 순위 지키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모바일 게임의 매서운 국내 진출과 모바일 게임 신작 홍수 속에서 게임 광고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과 온라인 채널에서만 유통되던 게임 광고는 이제 공중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 네이버 라인은 ‘라인 디즈니 썸썸’의 공중파 광고를 했다. 광고 모델은 인기 드라마 ‘왔다! 장보리’로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 이유리(35)였다. 김현지 네이버 홍보실 대리는 “광고가 나간 뒤 게임 인지도가 높아졌고 게임 이용자 수도 증가했다. 지상파 광고는 종료됐지만 온라인 광고 영상은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10월 모바일 퍼즐 게임 ‘포코팡’ 출시 당시 이종석(26)을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광고 단가가 높은 주말 예능 프로그램 시간에 텔레비전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다. 덕분에 ‘포코팡’은 출시 5개월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국내 스마트폰 게임 히트작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 마케팅 여력 없는 중소 게임사 난항

대형 모델 없이 게임 콘텐츠만으로 승부를 거는 광고도 있다.

네시삼십삼분(4:33)은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와 ‘영웅’의 공중파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블레이드’의 경우 ‘칼 갈아요~칼’이란 광고 카피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영웅’은 텔레비전 광고 이후 신규 이용자가 약 90만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게임즈는 ‘세븐나이츠’와 ‘모두의 마블’의 공중파 광고를 집행했다. 지난 2일부터 전파를 탄 ‘모두의 마블’의 경우 15초 분량으로 게임 대표 캐릭터들이 상대방 요새를 파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이 게임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출시되자마자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에 올랐다.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에서도 현지 모바일 게임 인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 속에 모두의 마블은 글로벌 6000만 다운로드 및 1000만 일일 게임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공중파 광고 노출도 가입자 확보와 인지도 제고 성격이 짙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모두의 마블 광고는 이번달 28일까지 주요 공중파 채널과 케이블 방송, 라디오 황금시간대에 전파를 탄다”며 “광고 말미에는 게임 인기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번호를 공개해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게임 광고 전쟁 속에 중소 게임사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고 있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인기 상위권에 오른 게임들은 대부분 광고를 많이 한 작품들이다.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순위권에 오르기 힘들어졌지만 자본이 부족한 회사는 계속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게임업계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쉴드 태블릿’으로 하스스톤 즐겨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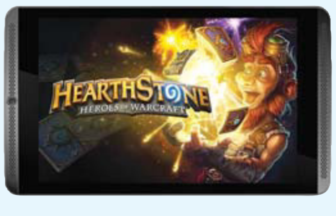
게임용 태블릿의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엔비디아는 6일 열리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하스스톤 1주년 와글와글 하스스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쉴드 태블릿’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카페 드롭탑(Cafe DROPTOP)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 8인치 풀HD 디스플레이를 자랑하는 ‘쉴드 태블릿’으로 하스스톤을 즐길 수 있다. ‘쉴드 태블릿’은 엔비디아에서 직접 설계·제조해 게임에 최적화된 스펙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특히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풍부한 사운드가 보다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하스스톤 마니아이자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인기몰이 중인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기욤 패트리와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등이 참가하는 이벤트 경기도 열린다.

/이국명기자



자녀와 함께 게임 즐겨보세요

게임업계 학부모와 소통 강화 위해 전용페이지·직업체험교실 운영

“학부모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라.”

‘공부의 적’ 취급을 받는 게임업계가 학부모 설득에 나섰다.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려 학부모들의 편견을 바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최고 인기 게임인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는 학부모를 위한 전용 페이지(**사진 위**)를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페이지는 자녀가 좋아하는 LoL과 e 스포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긍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 게임 이용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자녀들의 게임 이용 시간,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게임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라이엇 게임즈는 설명했다.





이밖에 셧다운 제도, 게임 시간 선택제, 게임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등 복잡한 게임관련 법규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궁금한 점은 1대 1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두의 마블’ ‘마구마구’ 등으로 유명한 넷마블게임즈는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아래**)로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은 학부모가 게임을 좋아하는 자녀와 함께 게임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을 같이 만들어보면서 자녀의 숨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직무탐색, 올바른 게임 미디어 이용법, 게임 테스트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닌텐도 포켓몬 신작 17만개 판매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의 포켓몬 신작이 국내 판매량 17만개를 돌파했다.

한국닌텐도는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와 ‘포켓몬스터 알파사파이어’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17만개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두 게임은 지난해 11월 21일 발매된 포켓몬스터 시리즈 최신작으로 국내에서 발매된 역대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중 가장 빠른 판매 기록을 세웠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설날을 맞아 ‘닌텐도 3DS 설날 대박 사건 캠페인’을 진행한다.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나 본체를 구입하는 사람은 특별판 본체와 피카츄 인형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천천히 느리게 가는 배우 되고파"

정우(34)에게 2013년 방송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인생에서 한 번쯤 찾아온다는 기회였다. 데뷔 이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였기에 그 동안의 노력의 대가가 되기에 충분했다. '스타'라는 칭호가 그 대가였다.

그러나 정우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느리게 가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응답하라 1994' 이후 차기작 소식이 없자 주변에서는 작품을 너무 고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럴수록 정우는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고민했다. '흥행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후회 없을 작품인가'를…. 냉정한 질문 끝에 마침내 만난 다음 작품이 바로 영화 '쎄시봉'이었다.



'쎄시봉'은 1970년대를 풍미한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무대로 청춘들의 풋풋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다. 송창식, 윤형주로 이뤄졌던 트윈 폴리오가 사실 듀엣이 아닌 트리오였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가상의 인물 오근태와 이들의 뮤즈인 민자영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췄다.

정우는 극중 20대 시절의 오근태를 연기했다. 순박하면서도 순수한 청년이다. 처음 만난 사내들과 거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다혈질이지만 한눈에 반한 사랑 앞에서는 어찌 할 줄 모르는 숙맥이기도 하다. '응답하라 1994'에서 연기한 쓰레기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정우는 오근태와 쓰레기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연기하면서 제 자신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캐릭터나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연기하는 사람은 정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라면 영화 속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며 연기할 뿐이에요."

음악도 중요한 영화인만큼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연주해야 했다. 경험이 없어 긴장되는 도전이었다. "잘하는 척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두 달 남짓한 기간 연습을 해봤자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웃음) 그 대신 진심이 전달된다면 부족한 실력도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근태가 민자영을 향해 수줍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르는 장면은 그런 정우의 진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응답하라 1994'와 '쎄시봉'은 시대가 달라도 청춘의 감정은 하나라고 말한다. 어설프고 서툴지라도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것이 곧 이들 작품이 말하는 청춘의 정체다.

정우는 자신의 청춘을 "갈팡질팡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70년대 청춘 로맨스 그린 영화
다혈질이지만 연애 '숙맥' 연기
한작품씩 배워 나가고 싶어요

지 고민하며 무작정 하루하루를 살아간 불투명한 시기"라고 표현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촬영장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끼던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열정과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자신과 같은 청춘의 시기를 보낸 선배들이 건네준 작은 말 한 마디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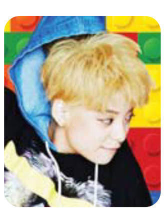
'쎄시봉'을 마친 정우는 지금 영화 '히말라야'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천히 느리게 가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쎄시봉'이 상업영화로는 첫 주연작이에요. 한 작품씩 배워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30대 중반인데 지금 배워서 언제 좋은 연기 할 거냐고 말하겠죠? (웃음)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정말 천천히 느리게 가고 싶어요. '천천히 느리게'라는 말이 제 인생과 접목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배우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디자인/박은지

star bag

첫 솔로앨범 '뷰티풀' 발표



걸그룹 에프엑스 **엠버**가 16일 첫 솔로 미니앨범 '뷰티풀'을 발표한다. 엠버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이번 앨범엔 총 5곡이 수록돼 있다.

타이틀곡엔 소녀시대 태연이 피처링했다. 엠버는 앞서 에프엑스의 '굿바이 써머' '써머 러브' 등으로 작곡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앵그리맘'서 김희선 남편



배우 **임형준**이 MBC 새 수목극 '앵그리맘'에서 김희선 남편으로 출연한다. 그가 분한 오진상은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비겁해지고 적당히 나빠진 영악한 가장이다.

임형준은 특유의 감칠맛 나는 연기 내공으로 시청자의 미움을 독차지할 예정이다. '킬미힐미' 후속 작으로 3월 첫 방송된다.

미스터리물 '조류인간' 출연



신인 배우 **정한비**가 영화 '조류인간'(감독 신연식)으로 스크린을 접수한다. '조류인간'에서 미스터리한 서사 전개의 중심의 선 인물을 연기했다.

비밀을 간직한 캐릭터로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정한비는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예승(갈소원)의 담임 선생님 역으로 데뷔했다. 영화는 26일 개봉 예정이다.

리지와 듀엣송 '굿바이 PMS'



개그맨 **박명수**가 애프터스쿨 리지와 듀엣송 '굿바이 PMS'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11일 공개한다.

'굿바이 PMS'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몬스터와 헤어지고 싶은 소녀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댄스곡이다. 박명수는 몬스터로 변신해 호통치는 랩을, 리지는 사투리 피처링으로 이색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돌 전유물로 전락한 음악방송



기자 수첩
김 지 민
<문화스포츠부 기자>

"TV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이유요? 이미 아시지 않나요. 저희들이 나갈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는 최근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전영록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전영록은 중견 가수들이 출연할 만한 프로그램은 KBS1 '콘서트 7080'과 '열린음악회' 정도로 이마저도 매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약 2, 3회 출연이 전부라고 했다.

지난해 양희은, 한영애 등이 새 앨범을 발표했지만 음악 방송이 아닌 공연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콘서트는 중견가수들이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연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티켓 가격도 10만원대 전후로 누구나 쉽게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대중들이 편하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라디오와 TV다. 현재 방송 중인 지상파 3사와 케이블 채널 등의 음악 프로그램을 모두 합치면 십수개에 이른다. 그러나 황금 시간대인 주말 오후에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은 아이돌 가수들이 점령한지 오래다.

지난주 지상파 3사 음악 방송 출연 가수 목록만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이돌 가수가 아니더라도 발라드·댄스·힙합 등 젊은 세대가 즐길만한 음악뿐이다. 출연진의 연령대를 떠나 장르의 다양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각 방송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희열의 스케치북' '윤건의 더 콘서트' '가요시대'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심야 시간대에 편성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세대와 장르를 떠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HOT PHOTO



'홍대여신'의 변신은 무죄 가수 레이디제인(본명 전지혜)이 1년 4개월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다. 레이디제인은 6일 정오 신곡 '스무살이니'를 발표한다. 레이디제인은 청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신곡 '스무살이니'는 강렬한 트랩 비트가 돋보이는 노래로 힙합레이블 브랜뉴뮤직의 수장 라이머(본명 김세환)이 프로듀싱했으며 힙합그룹 팬텀의 키겐(본명 이기원)이 작곡했다. 레이디제인의 소속사 CS엔터테인먼트는 "'홍대여신'으로 잘 알려진 레이디제인과 힙합신의 거장 라이머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성숙한 외모가 되레 장점"

신인 배우 이태환 '오만과 편견'으로 존재감 과시

배우 이태환(20)이 MBC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사나이' 출연을 희망했다.

"그룹 서프라이즈의 취지가 다섯 배우들이 춤, 노래, 예능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는 거예요. 서강준이 출연하는 SBS '룸메이트' 덕분에 저희 그룹을 알렸잖아요. 예능에도 욕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두 프로그램은 성격이 전혀 달라서 출연하고 싶어요. '우리 결혼했어요'를 하면서는 교감하고 싶고 '진짜 사나이'를 통해선 전우애를 느끼며 운동하고 싶거든요."

이태환은 모험을 좋아하는 어린이였다. "5~6살에 산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무작정 갔어요. 혼자서는 무서우니까 최소 2명이랑 아침부터 돌아다녔죠. 모르는 동네여도 걸어다니며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해요. 친구들이 'TV에서 뭐하고 있냐'고 문자를 보내요. 친구들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연기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인 배우인 그는 지난달 종영된 MBC '오만과 편견'에서 비중 있는 주조연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이태환은 "짜릿하다"며 배우의 매력을 언급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낯가림이 심하고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배우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거 같아요. 배울수록 매력 있죠. 쓴소리여도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감동받아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 보니까 짜릿하더라고요."

'오만과 편견'에서 수습검사 한열무(백진희)를 짝사랑하는 순수한 수사관 강수를 연기했다. 이태환은 "모태솔로에다가 짝사랑 경험도 없다"며 촬영 비화를 이야기했다.

"모태솔로여서 아쉬워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동안 일과 학업 때문에 연애 기회를 일부러 밀어냈거든요.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저 몰래 백진희에게 '들이대라'고 조언을 했대요. 그걸 모르고 저는 누나가 들이대니까 민망했죠. (웃음) 그래도 덕분에 강수의 순수함이 잘 나온 거 같아서 좋았어요."

이태환은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모를 지녔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과 편견' 정혜성, 최우식을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했어요. (웃음) 서프라이즈에서도 막내 같지 않은 막내가 제 콘셉트죠. 남자다워져야 한다는 걸 느껴서 살을 뺐고 18살부터 이 얼굴이죠. 근데 오히려 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승원처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



/손진영 기자 son@

김창완밴드 정규 3집 '용서' 발표… '60대 청년' 끊임없는 도전

한국 록의 살아있는 역사 김창완밴드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창완밴드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홍대 라이브홀에서 정규 3집 '용서' 발매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1978년에 발표한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를 퓨전국악밴드 잠비나이와 함께 재해석했다. 어둠에 휩싸인 무대 위로 해금, 거문고,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김창완밴드의 기타, 드럼 소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무대였다.

김창완은 "데뷔 때부터 꾸준히 한국 록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산울림 초창기에도 아리랑 선율을 도입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늘 미흡하게 느껴졌다. 이번 시도로 '코리안록'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엔 소통을 바탕으로 한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타이틀곡 '중2'는 일명 '중2병'이란 말로 표현되는 민감한 사춘기의 심리를 가사에 담았다.

그는 "가사를 보여줬더니 중2 학생이 '실제로 우린 이렇지 않다'고 해서 가사를 바꿀까도 고민했다"며 "하지만 어른들의 오해를 그대로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도 다 그런 유아독존적인 시기를 거쳤다. 얼핏 보면 중2를 힐난하는 것 처럼 들리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발표한 '노란리본'도 이번 앨범에 수록됐다. 김창완은 "이 곡 역시 용서의 일부"라며 "진정한 용서는 그냥 잊어주는 것이다. '내가 널 용서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용서에 걸맞지 않고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용서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media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김보경 위건 새둥지 트나

잉글랜드행 이끈 매케이 감독 '눈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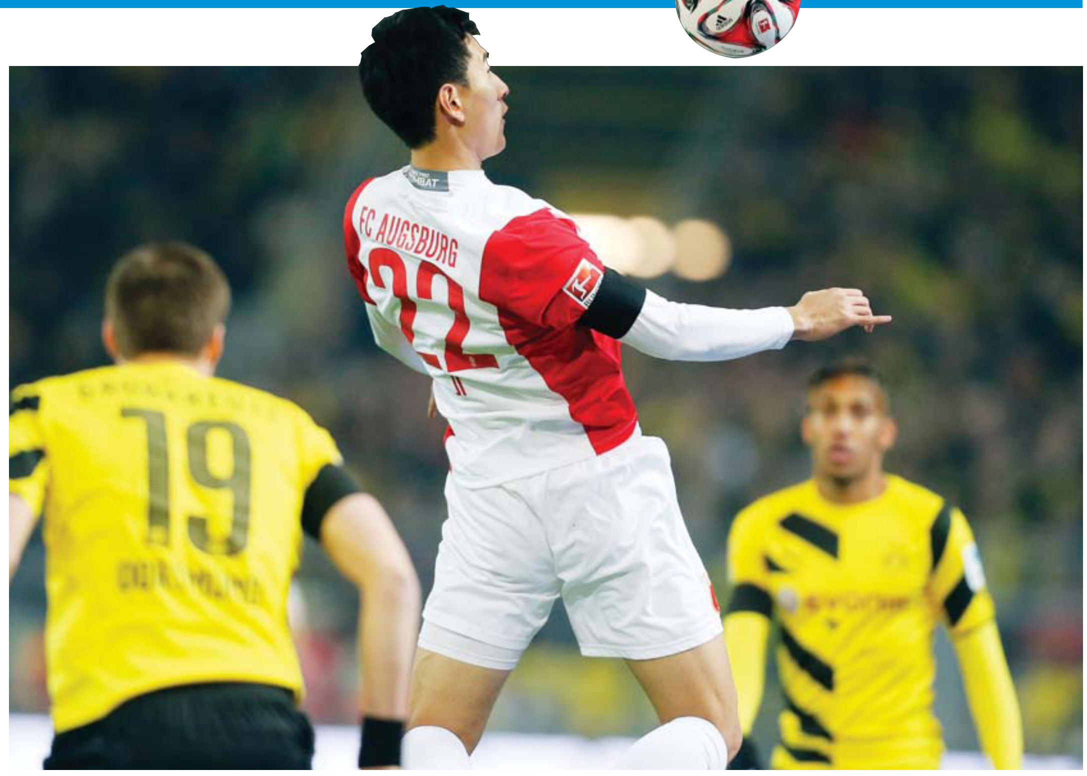
최근 카디프시티와 계약을 해지한 김보경(26·**사진**)이 위건 애슬레틱스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보경의 에이전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의 위건이 김보경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위건의 사령탑인 맬키 매케이 감독은 김보경을 직접 발탁해 잉글랜드 무대로 이끈 지도자다.

김보경은 2012-2013시즌 매케이 감독이 이끌던 카디프시티에 입단해 유럽 축구에 발을 들였다. 이흐 카디프시티의 챔피언십 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도우며 2013-2014시즌에 완전한 주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카디프시티는 한 시즌 만에 강등됐고 매케이 감독이 경질된 뒤 김보경은 올 시즌 벤치 신세를 졌다.

몇몇 현지 언론은 김보경이 현재 위건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곧 입단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민준기자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이 5일(한국시간)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출전해 볼을 낚아채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동원 존재감 빛났다

11개월만에 선발 출격 65분 활약… 결승골 지원

지동원이 선발 출전해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에 힘을 보태며 이번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5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1-0으로 꺾었다.

지동원은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출전해 65분을 소화했다.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몸놀림으로 상대 선수들을 괴롭혔다. 특히 후반 5분에는 라울 보바딜라의 결승골에 관여했다.

하릴 알틴톱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돌파하다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수비수들과 엉키며 공이 흘렀다. 지동원은 몸으로 수비수들을 막아 공이 보바딜라에게 연결되도록 했고, 보바딜라는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지동원이 1군 경기에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해 3월 하노버전 이후 11개월 만의 일이다. 2014-2015시즌을 앞두고 도르트문트로 전격 이적한 지동원은 단 한 번의 출전 기회도 잡지 못했고 후반기 시작 전 아우크스부르크로 복귀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날 승리로 11승8패를 기록, 4위로 올라섰다. 도르트문트는 꼴찌인 18위(승점 16)로 내려앉았다.

경기 후 골닷컴은 "자주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바디야, 알틴톱과 연계 플레이에 좋은 이해를 보여줬다"며 평점 5점 만점에 2.5점을 부여했다.

한편 손흥민의 레버쿠젠은 후반 4분 터진 슈테판 키슬링의 결승골을 앞세워 헤르타 베를린을 1-0으로 제압했다. 손흥민은 결장했다.

김진수(호펜하임)는 베르더 브레멘과의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왼쪽 측면을 책임졌으나 호펜하임의 1-2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우즈 "목표는 마스터스"



PGA 파머스오픈 출격

지난주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스코어를 적어낸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올 시즌 최대의 목표는 마스터스라고 밝혔다.

이번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하는 우즈는 5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4월 9일 열리는 마스터스에 대비해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피닉스 오픈 2라운드에서 82타를 친 뒤 컷 탈락한 우즈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지난주 부진의 원인을 스윙 교정 탓으로 돌렸다.

그는 "옛날과 지금의 스윙은 극과 극의 위치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전혀 반대"라며 "좀 더 샷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즈는 6일 새벽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북코스 10번홀에서 리키 파울러, 호셸(이상 미국)과 1라운드 경기를 시작했다. /김민준기자

꾀병으로 A매치 불참 후 소속팀 경기 나섰다가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부상을 이유로 아프리카네이션스컵에 참가하지 않은 세네갈 대표팀 공격수 디아프라 사코(웨스트햄·**사진 가운데**)에게 소속팀 경기에서는 뛴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웨스트햄에 벌금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코도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FIFA는 웨스트햄이 A매치 기간에 소집되는 선수를 회원국에 보내줘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코는 허리 부상이 있다고 주장해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직전에 세네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브리스톨 시티와의 FA(잉글랜드축구협회)컵 4라운드 경기에 교체로 출전해 결승골까지 터뜨렸다.

세네갈은 아프리카네이션스컵에서 C조 3위에 그쳐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웨스트햄이 거짓말로 선수를 빼돌렸다며 FIFA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민준기자

"추신수, 올해 텍사스 넘버2 타자"

美 통계사이트 122안타·14홈런 기록 예상



추신수(**사진**)가 올 시즌 팀 내 '넘버2' 타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5일(한국시간) 텍사스 선수들의 2015년 예상성적을 공개했다.

ESPN 칼럼니스트이자 야구 통계 전문가인 댄 짐보르스키가 개발한 'ZiPS 프로젝션'을 활용한 것으로, 추신수는 올해 타율 0.260, 출루율 0.372, 장타율 0.40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ZiPS는 추신수가 560타석에 들어서 122안타를 쳐내며 14홈런 11도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타점은 46, 득점은 71이었다. 지난해 기록(529타석 110안타 13홈런 3도루 40타점 58득점)보다 모두 상승한 수치다.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역시 지난해(0.242, 0.340, 0.374)보다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2013년 기록(타율 0.285, 출루율 0.423, 장타율 0.462)과는 격차가 크다.

다만 전체적인 공격 생산성은 아드리안 벨트레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세금둥둥섬’이 되어버린 세빛둥둥섬



권기봉의 **도시산책** <113>

한강을 가로지르는 서울 반포대교를 건널 때면 씁쓸한 시선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하나 있다. 2011년 준공했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운영을 시작한 인공섬 ‘세빛둥둥섬’이다.

이 인공섬은 준공 당시 서울시장이 총면적 2만382㎡의 세계 최대 인공섬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치켜올렸지만, 정작 세빛둥둥섬이 아니라 아까운 세금만 축내는 ‘세금둥둥섬’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먼저 물리적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름마다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한국의 기후 특성상 강 위에 세빛둥둥섬처럼 거대한 구조물을 그대로 띄어 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2011년 세빛둥둥섬과 한강 둔치를 연결하는 고정식 다리를 만들었다가 철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사업성도 걸림돌이 되었다. 운영을 맡은 업체가 세빛둥둥섬에 투자한 민간자본에 매달 10억 8800만원, 연간 130억64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감사원도 지적했듯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데 있었다. 당시 세빛둥둥섬 건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도 짓기 전에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고.

그러나 에펠탑은 19세기의 일이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선 것도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그때의 의견수렴 구조와 지금의 그것이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또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도 만국박람회 기념물이자 전파 송신 기능이 있는 에펠탑이나 오페라하우스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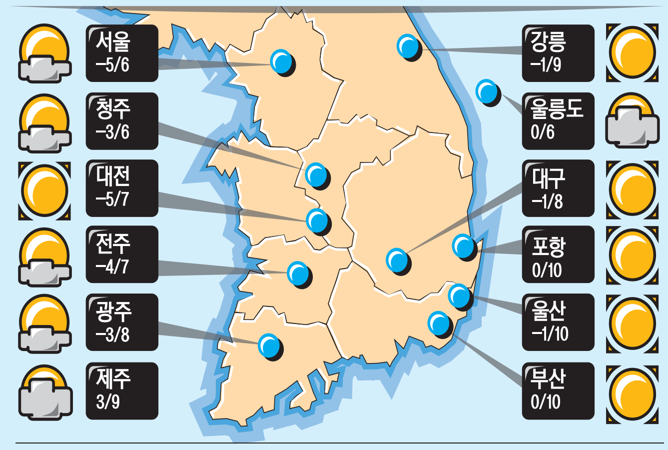
다 지어놓고도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세빛둥둥섬…. 최근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며 ‘둥둥’을 떼어버리고 이름을 ‘세빛섬’이라 바꾸고 예식장 등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그 동안 쏟아부은 예산을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철거해버리자는 주장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다시,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2/6 金 일출시각 07:32 일몰시각 18:0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척추와 골반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 변위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방광을 압박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연금생활자인데 IT서비스 대리점 고민 일은 찾아서 하되 금전적 투자는 금물

월 덕 귀인 남자 51년 양력 10월 19일 오후 2시경

Q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평소에 즐겁게 보고 있으며 오래전에 저도 역학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상담을 올린 사람들의 것을 풀어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풀어보는 것이 잘 맞지를 않아 저의 사주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남자로서 토끼띠에 양력 10월 19일 오후 2시경이 저의 생일입니다. 권력계통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연금을 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도 될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 합니다.

A 귀하는 역학용어로 살인상생(殺印相生)격으로 협상과 해결의 명수입니다. 관(官)이 많고 무술(戊戌)과 임진(壬辰)의 괴강(보스기질)의 살성(殺星) 장점을 갖고 있으니 권력계통에서 종사해온 것이며 강인한 사람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덤비는 습성도 있습니다. 수룡(水龍)으로 변화무쌍하여 재주가 넘치고 속전속쾌 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지나 계속해서 물을 벗어나 하늘에 오르지 못하므로 성업(成業)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속단하여 일을 벌이면 벌이는 만큼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지만 괴강으로 독선 하므로 화합력이 부족하여 외화내빈이 되어 궁색하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동주입묘궁(同柱入墓宮: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데 묘지로 들어가 있는 형국)으로 시비, 송사의 구설수가 따르게 됩니다. 귀하를 지켜주고 필요로 하는 오행이 쇠지(衰地:쇠하여 멸하는 흉함)에 들어가 있으므로 고난이 따르고 사업을 하려면 재운(財運)이 승발 해야 하는데 직장이나 사업이 하향 길로 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리점개설은 하지 않는 것이 손재를 막는 방법입니다. 임수(壬水) 일간이 사업이나 직장 운은 없어도 생활하는데 고통스러움은 없는 상태이므로 일은 찾아서 하되 절대로 금전적인 투자는 금해야 합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식상(食傷)운이 되어 다단계의 유혹이 마음을 흔들지만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과거에 지식과 경륜을 이용 할 수 있는 분야의 일거리를 찾도록 하세요. 2016년 이후 간담질환 등을 조심해야 하며 신장과 비뇨기질환으로 고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7	3			2
	6		9			7		
			4				8	
		5				6	4	
		7		3		8		
	8	4				5		
	9				7			
		2			1		7	
5			2	9		4		

	2			3	4			
1	5							
		4			1	7		
5					2		1	
		7				6		
	6		3					9
		2	8			9		
							7	4
			6	9			2	

스도쿠 정답

4	5	9	8	7	3	1	6	2
2	6	8	9	1	5	7	3	4
7	3	1	4	2	6	9	8	5
9	1	5	7	8	2	6	4	3
6	2	7	5	3	4	8	9	1
3	8	4	1	6	9	5	2	7
1	9	6	3	4	7	2	5	8
8	4	2	6	5	1	3	7	9
5	7	3	2	9	8	4	1	6

7	2	8	5	3	4	1	9	6
1	5	9	7	8	6	2	4	3
6	3	4	9	2	1	7	8	5
5	9	3	4	6	2	8	1	7
8	4	7	1	5	9	6	3	2
2	6	1	3	7	8	4	5	9
3	7	2	8	4	5	9	6	1
9	8	6	2	1	3	5	7	4
4	1	5	6	9	7	3	2	8

문제 제공= 보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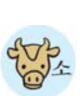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랑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2월 6일 (음 12월 18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사소한 허물은 덮어 주는게 좋습니다. **60년생** 인내하고 포용심을 가지는게 필요합니다. **72년생** 먼저 손을 내밀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49년생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어렵습니다. **61년생** 리더쉽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73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5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50년생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62년생** 자신감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74년생**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의욕있게 추진하세요. **86년생** 주위의 칭찬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51년생 주위를 도와주면 오히려 이득이 있습니다. **63년생** 재물운이 있는 하루입니다. **75년생** 즐거운 일는데 무엇을 선택할 지 고민입니다. **87년생** 직장,학업에 좋은 성취가 있습니다.



52년생 좋은 벗을 만나 회포를 푸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먼 곳다는 가까운 곳에서 인연을 찾으면 길합니다. **76년생**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88년생**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 보다는 베푸는게 좋습니다.



54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멈추는게 좋습니다. **66년생** 주위 생각보다는 본인 생각대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78년생** 급하면 체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노력하면 주위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6년생 거절하지 말고 수용하면 오히려 이득이 있습니다. **68년생** 버릴 것이 없는 좋은 하루입니다. **80년생** 일도 잘 풀리고 기분도 좋습니다. **92년생** 친구와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7년생 칭찬은 많이 하고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69년생**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습니다. **81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할수록 이득이 많습니다. **93년생** 인연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58년생 실보다 득이 많은 하루입니다. **70년생** 결정하기전에 한번 더 검토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82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94년생** 평범하고 무난한 하루입니다.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봄 알리는 큰고니떼 5일 충남 당진시 합덕제를 찾은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들이 먹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오늘 발표

9일부터 사흘간 입학 신고·등록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후기고(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입학예정자 6만8653명에 대한 배정 결과를 6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 학교 배정비율은 92.6%로 작년(91.9%)보다 0.7%포인트 올랐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32.7명에서 3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통지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는 6일 오전 10시에 배부된다.

배정 결과를 확인한 학생은 9일부터 11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배정 후 거주지 변동 등에 따른 입학 전 전학은 10일부터 3일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후기고 배정에서 과학중점과정 운영학급이 있는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1791명을 우선 배정한 뒤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첨 배정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등은 다른 학교에 분리 배정됐다.

/황재용기자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설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최대 2시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

120곳은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며 나머지 347곳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또 당국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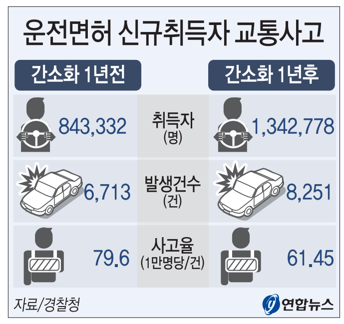
한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작년 1월 연중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차 허용 후 이용객 수와 매출액 모두 평균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재용기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1년 후 교통사고 되레 줄었다

사고율 꾸준히 감소 추세

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를 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



간소화 1년 후 사고율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나서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면허를 딴 운전자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낸 교통사고 건수를 추적해 합계를 낸 후 1만명당으로 환산한 수치다. 간소화 1년 전 사고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율은 간소화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 1년 후 61.45건, 2년 후 61.43건으로 간소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찰에 접수된 사고뿐 아니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사고 건수까지 망라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상의 사고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AS 통계상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교통사건 건수를 추적 조사해보니 간소화 3년 전 사고율이 322.98건, 2년 전 304.23건, 1년 전 255.18건, 1년 후 148.94건으로 간소화 이후에도 사고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단비 같은 동해안 눈! 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원 동해안지역에 지난 5일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눈이 내렸다. /연합뉴스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37%↓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결과 음주운전이 3만7728건 적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1124건)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전북(-23.8%), 경북(-22.3%), 서울(-21.8%), 광주(-17.8%)에서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고 제주(45.1%), 경남(38.1%), 울산(24.4%)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7.4% 급감했다.

부산과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월평균 42명인데 반해 특별 단속 기간에는 월평균 31명으로 떨어져 특별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현정기자

인사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인사교류 ▲ 국토정보정책관 김선태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허남용

■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장 신영숙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 정책교육과장 손무조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팀장급(경정) ▲ 교육지원과 기획총괄팀장 방영구 ▲ 교육지원과 대외협력팀장 김현 ▲ 인재개발과 교수팀장 서동일 ▲ 교육훈련과 훈련기획팀장 김기환 ▲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센터장 임재철 ▲ 교육훈련과 3011함장 김충관 ▲ 종합훈련지원단 우채명

■ 새만금개발청

◇ 국장급 전보 ▲ 투자전략국장 김채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기획이사 임희택

■ 전북 남원시

◇ 5급 전보 ▲ 민원과장 조정희 ▲ 경제과장 하두수 ▲ 산림과장 정창호 ▲ 사매면장 장승규 ▲ 덕과면장 서동우 ▲ 산동면장 김순기 ▲ 왕정동장 박석만 ▲ 원예허브과장 직무대리 이준무 ▲ 대산면장 직무대리 박병재 ▲ 산내면장 직무대리 김완식

■경남도교육청

◇ 교감 승진 ▲ 창원(창원) 박종환 ▲ 창원(마산) 김태오 ▲ 창원(마산) 박재철 ▲ 창원(진해) 성두원 ▲ 창원(진해) 성송자 ▲ 창원(진해) 구향숙 ▲ 통영 박주희 ▲ 통영 안광민 ▲ 통영 이경숙 ▲ 통영 이인선 ▲ 통영 정숙임 ▲ 통영 정일권 ▲ 사천 조연성 ▲ 김해 김종숙 ▲ 김해 김지영 ▲ 김해 박성숙 ▲ 김해 신동철 ▲ 김해 안병둘 ▲ 김해 이상기 ▲ 김해 이영애 ▲ 김해 이옥란 ▲ 김해 정석철 ▲ 김해 홍미자 ▲ 밀양 김현미 ▲ 거제 김윤점 ▲ 거제 신동승 ▲ 거제 오미자 ▲ 거제 이종규 ▲ 거제 이종우 ▲ 거제 정성철 ▲거제 허명순 ▲ 양산 강기섭 ▲ 양산 김명수 ▲ 양산 김성미 ▲양산 김일경 ▲ 양산 백수경 ▲ 양산 손봉출 ▲ 양산 유상길 ▲ 양산 정진수 ▲ 양산 최화실 ▲ 의령 김광섭 ▲ 의령 김기수 ▲ 의령 홍정순 ▲ 함안 강동애 ▲ 함안 권민애 ▲ 함안 우민섭 ▲ 함안 정금도 ▲ 함안 최만식 ▲ 함안 허둘옥 ▲ 창녕 김미경 ▲ 창녕 박정문 ▲ 창녕 이순엽 ▲ 창녕 이정남 ▲ 고성 이연미 ▲ 고성 정정자 ▲ 남해 김금 ▲ 남해 최낙환 ▲ 하동 박선희 ▲ 하동 오미자 ▲ 하동 정희철 ▲ 하동 하수진 ▲ 함양 김두지 ▲ 함양 박선미 ▲ 함양 정명숙 ▲ 거창 박미자 ▲ 거창 오정식 ▲ 거창 최남옥 ▲ 거창 홍미순 ▲ 합천 강미경

■ KTB자산운용

◇ 상무 승진 ▲ 채권운용담당 김보형

부고

▲김상도씨 별세, 김성수·미녀씨 부친상, 박상수(연합뉴스 국제국 차장)씨 장인상 = 4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6일 오전. 051-305-4000

▲ 최병길(전 한국도자기 부사장)씨 별세, 종묵((주)하동 대표이사)·필근(성남 우리 정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송창희(중부매일 부국장)·홍현주(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씨 시부상, 김동찬(동하 트레이딩)씨 장인상 = 4일 오전 10시10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8호 특실, 발인 2월7일 오전 7시 043 224-2898

▲ 장선문씨 별세, 장사인(충주 세성초 교장)·사범(충주 중앙초 행정실장)·사락(충주 중앙중 교사)씨 부친상 = 4일 오전 5시, 충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43-840-8492

▲ 김묘순씨 별세, 박종선(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소재내수팀장)씨 모친상 = 4일 오후 1시 55분, 전북 정읍 호남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063-53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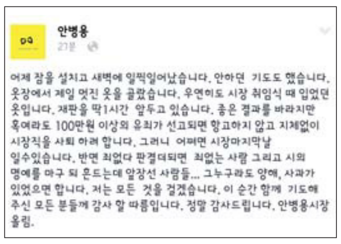
의정부시장 당선무효형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SNS에 항소 않겠다는 글 올렸다 삭제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안병용
21분
어제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찍일어났습니다. 안하던 기도도 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우연히도 시장 취임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재판을 딱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 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장마지막날 일수있습니다. 반면 죄없다 판결대되면 죄없는 사람 그리고 시의 명예를 마구 되 흔드는데 앞장선 사람들... 그누구라도 양해,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순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병용시장 올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페이스북에 항소를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데 안 시장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안 시장은 시장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삭제됐다.

또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떠났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날 안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안팎에서는 안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안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동원해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차량 수십대 매몰 5일 오전 광주 남구 본선동 한 아파트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십여 대가 매몰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태광家 상속 소송전 영향 줄 듯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999년 서울가정법원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 회장의 삼남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아 관리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청구주식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중부세무서에 요청했다. 중부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게 됐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차명 주식 규모가 공개되면 태광그룹 일가 상속 소송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

/조현정기자



출격준비 끝! 5일 충북 청주시 17전투비행단 공군기지 등에서는 한국군 단독 공중전투 훈련인 '소어링 이글'이 실시됐다. 사진은 KF-16 전투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정규직 철폐 '오체투지' 경찰과 몸싸움 끝 6명 체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철폐를 촉구하며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전면폐기 SK-LG 통신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 1팀 20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행진단 측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 견인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행진단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충돌로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등 여성 1명과 남성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김대환 집행위원장은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행진단은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멈춘 채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황재용기자

고용부 올해 강소기업 1만2455곳 선정

작년보다 28.5% 증가…다양한 재정·금융지원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4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강소기업' 1만2455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9692곳)보다 28.5% 늘어난 수치로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이 8015곳(64.3%)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962곳·15.8%)과 출판·방송통신 등 정보서비스업(984곳·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 5461곳(4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인 이상 50인 미만이 2964곳(23.8%),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2344곳(18.8%)이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와 고용창출 지원사업 선정과 청년인턴제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재정·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강소기업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사람인 등의 민간 취업포털, 대학·자치단체(일자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주민번호 무단 수집하면 처벌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온라인에서는 ▲회원 가입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민원 ▲서비스 신청 ▲회원 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HNT 하나허니문

허니문 주말상담회

매주 토요일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허니문 주말 상담회(매주 토요일)에서 드리는 특전!

event 01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 (커플 당) ※일부상품 제외

event 02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 스타벅스 기프티콘 1만원** 증정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사전 전화예약 필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0 삼릉빌딩 1층



커플 15만원 백화점상품권 증정!

몰디브 ★지탈리 워터빌라 위드풀 6일

3,792,800부터 (⊕포함)/선택경비:없음

▶2월~6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몰디브(4)
- 개인풀을 보유한 수상객실
- 커플당 20만 하나투어 마일리지+전식 제공+워터빌라 위드풀
- 리조트 전식 제공, 허니문 예약자에게 샴페인 1병 제공



2월 예약고객 선착순 2쌍 신부반값!

푸껫 ★반다라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 6일

1,512,3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❶

▶3월~6월 매주 일,월요일 출발

- 푸껫(4)
- 24인치 하드캐리어(화물용)제공
- 데일리 깜짝 선물(망고과일바구니,스노클링 개인장비,스낵바구니 등)
- 스파 마사지 3회(발마사지,전통안마,오일마사지 등)
- 푸껫타운 로맨틱 스냅촬영 및 요트투어(스노클링,바다낚시 체험)



커플당 최대 80만원 상당 혜택!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8일

2,440,0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2월~6월 매주 일요일 출발

- 로마(3)-피렌체(1)-베니스(1)
- 피렌체에서 2시간 스냅촬영 진행
- 로마→피렌체→베니스 열차 2등석 포함
- 커플당 하나투어 마일리지 20만마일리지 제공
- 롯데상품권 5만원, 와인1병, 8만원상당 아크릴액자 제공
- 이태리 전문가이드와 로마시내(바티칸) 관광 & 로마 지도 제공
- 와인과 함께 나오는 마짱꼴레(해물특식) 디너 포함



커플당 50만원 할인!

오아후 ★쉐라톤 PK 6일/7일

2,312,900부터 (⊕포함)/선택경비:있음

▶3월~6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오아후(4/5)
- 메리엇 호텔 디너 1회 포함(쿠히오 그릴뷔페)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 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쉐라톤 PK 타워파샬오션뷰→타워하이오션뷰 무료 룸 업그레이드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진행

☎ 허니문 상담팀 **02)2127-1234**

■여행상품 가격포함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 : 있음/없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안전경보단계]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 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1.30. 업데이트 기준)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